



관설동 성당

설립일. 2016. 7. 26.
주보성인. 마리아 비안네

2024년 6월 23일
연중 제12주일

제1독서

욥기 38,1-11

제2독서

2코린 5,14-17

복음

마르 4,35-41



들빛바로가기
www.wjatholic.or.kr

화답송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심 유 섭 요한 사도 신부 / 배론 본당 주임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호수는 갈릴래아 호수입니다. 호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갈릴래아 호수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큰 호수를 건너가는 와중,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큰 풍랑의 한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 복음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겁을 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순간에 겁을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녁시간이라 날은 어두워졌고, 호수 한가운데서 거센 돌풍이 일어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일 의지하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배 안에서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의 이 표현은 당연한 표현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찌면 나의 모습이고, 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향해 서운함을 표현하고, 주님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보면 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말씀 안에 담긴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겁에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놓치고 있었던 것. 바로 그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계시다는 사실은 잊어버린채,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만을 표현합니다. 물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만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아껴주시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끼는만큼, 그 누군가도 나를 아껴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끼는 것도, 나를 아껴주는 것도, 서로가 함께 있을 때에나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겁을 내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에 머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의 두려움은, 제자들의 서운한 마음은 오히려 더 든든한 믿음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한 번 돌아봅시다.

주님께 나의 두려움과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주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 계심을, 내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두려움보다는 든든함이 더 가득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세상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시작은 보잘 것 없었지만 앞날은 크게 번창하리라(욥기 8,7)



관설동 성당

관설동 성당은 2016년 7월 29일, 원주교구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구곡과 단구동 성당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49번째 성당입니다. 관할 구역은 토지문학공원과 단구초등학교 앞길을 경계로 금대리까지입니다.

이곳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동안 교구 방침에 따라 몇 십년 다니던 단구동 성당에서 구곡과 봉산동 성당으로 교적이 옮겨져,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성당에서도 웬지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당 설립 소식은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비록 새 성당이 잡초 속에 처량하게 서 있던 창고였지만 이곳 신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본당입니다.



▲ 초기 관설동성당

2016년 8월 11일 신동영 사도요한 초대 신부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주보성인을 마리아 비안네로 정하고, 14일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신자들은 텅 빈 공간, 간이의자에 앉아 드리던 첫 미사에서 매 주일 아름답게 변해가는 성전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님은 각 단체도 구성하고, 봉사자 단합대회를 비롯하여, 2017년 7월에는 설립 1주년 행사를, 10월에는 전 신자 나바위 성지 순례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당이 시내와 적당히 떨어져 있고 주택이 가까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봉안당과 장례 예식장이 딸린 성당을 지어 신자들에게 성전과 사제관 신축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상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 설립 1주년 기념 행사

2019년 8월 23일 홍정호 야고보 신부님이 2대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해 12월 초에 시작된 코로나 19는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습니다. 신부님이 신자들과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성당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신자들이 미사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고 그 여파로 신자들의 수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거리 두기, 발열 체크, 바코드란 말들이 없어지고 모든 제재 또한 없어졌지만, 돌아오는 신자들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3대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하신 박흥준 요아킴 신부님은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기 위해 성당 주변을 정리하고, 꽃밭에는 손수 꽃씨를, 성당 둘레에는 측백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바람인 사제관 짓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 수가 너무 적고 재정도 넉넉지 않자, 성지가 지 판매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가끔 다른 성당으로 모금하러 다니십니다.

‘별 논’ 즉 ‘별판의 논’이라는 지명이 여러 번 변천 과정을 통해 관설(觀雪)이 되었다는 말에 걸맞게 주택보다 별판이 더 많은, 젊은이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우리 관할 지역, 올봄부터 성당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 건축물을 보면서 언젠가 사제관에 이어 주일학교 어린이와 젊은이가 함께 하는 활력이 넘치는 새 성당이 봉헌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 전 신자 성지 순례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사 중 주님의 기도는 사제의 초대 말, 주님의 기도, 사제가 혼자 바치는 후속 기도, 신자들이 바치는 마침 영광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신자들이 바치는 마침 영광송은 ‘아멘.’의 역할을 대신하기에 주님의 기도 끝에는 ‘아멘.’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81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60항 참조).

영성체 예식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체로 오시는 주님을 합당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느님 백성이 함께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청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체’(하느님의 빵, 요한 6,33 참조)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을 합당하게 모시려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청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는 영성체 준비에 적합한 기도입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81항 참조).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제는 먼저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라고 모두에게 기도를 권고합니다. 모든 신자는 사제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이어서 사제 홀로 팔을 벌린 채 후속 기도를 바칩니다. 후속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마지막 청원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악의 힘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끝으로 모두 함께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라는 마침 영광송으로 주님의 기도 전체를 끝맺습니다.

교회는 일찍이 전례 안에서 주님의 기도에 영광송을 덧붙여 기도드렸습니다(『디다케』 [Didache], 8,2 참조). 미사 중에 대영광송, 거룩하시도다, 감사 기도에서도 영광송으로 기도를 끝맺는데,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영광송으로 응답하는 것은 가장 합당한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fiat)라는 의미인 ‘아멘.’ 대신 주님의 기도를 영광송으로 장엄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용소막 이야기 Ⅲ



정 남 진 안드레아 신부 / 용소막 본당 주임

가만히 용소막 성당을 거닐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사제관과 성당의 위치 선정이다. 생각해 보면 다른 성당들은 언덕 위에 자리 잡거나 넓은 시내 중심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성당은 조금 억지스럽게 어중간한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 이미 넓은 논과 들판이 있었는데도 이런 곳에 왜 자리 잡지 않았을까? 보아하니 산 중턱에 성당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널찍하고 평평한 자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다. 여긴 일부러 산을 깎아 만든 장소다. 커다란 포크레인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시절, 왜 굳이 애를 쓰며 산을 파서 이런 곳에 성당을 지었을까?

들어보니 여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더라. 용소막 성당은 처음에 신림역 뒤편에 지으려 생각했었다고 한다. 당시 외국인 본당 신부와 총회장, 몇몇 신자들이 함께 성당 자리를 고민하며 신림역 뒤편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네더라. 그런데 이곳에 성당을 지을 계획이라는 말을 듣더니,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곳에 철마가 지나갈 터이니 저쪽 산 밑에 성당을 지으시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흘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현지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본당 신부는 그 말에 따라 지금의 자리에 성당 자리를 잡기로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략 30년 후, 정말 그곳엔 철도가 자리하며 역사가 신축되어 1941년 7월 1일, 중앙선 철도역 영업을 개시했다.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조상들은 ‘성 요셉’이라 생각하셨다고 한다.

사제관의 위치도 가만보면 참 묘하다. 보통 성당과 사제관의 위치를 잡는다면, 동등한 높이에 자리를 잡거나 마땅히 하느님의 집인 성당을 더 위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이 거처하는 사제관이 성당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자칫 불경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된 배경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곳 용소막이 교우촌으로 시작된 본당이라는 것이다. 사제관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면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높은 곳에 있기에 멀리 있는 곳까지 선명히 보인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신자들은 사제관과 성당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배치하면서 그 영향력에 의존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잘 투영했다. 특히 사제관은 전면의 의장성을 강조한 입면 구성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 역시 교우촌 전체의 배치와 연관이 있다.

당시 성당 주변, 걸어서 한 시간 거리 내에 살고 있는 신자들만도 800여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하니, 눈 뜨면 보이는 거룩한 성당과 십자가, 그들을 돌보는 목자의 집이 그들에게 큰 힘이요 보호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주일에 일을 하려면 관면을 받아야 했던 시절, 몰래 일을 하고 싶어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목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겠지만 말이다.



교구장 동정



6월 23일(주일) 사목방문(천곡동 성당)
25일(화) 민족화해위원회 평가위원 미사(명륜동 성당)
26일(수)~27일(목) 본당 사무장 및 사무 봉사자 연수 강의
30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사직동 성당)

기억해드립니다



선종 55주기
6월 27일(목)
이 바드리시오 신부



축하드립니다



수품일 6월 29일(토) 김지석 주교
여진천 신부

영명일 6월 24일(월) 요한 세례자 : 김진형, 백승치, 김민규, 이희선, 박승용, 박정원, 장형주 신부

29일(토) 베드로 : 박호인, 심한구, 유영규, 신동민, 이우갑, 김찬진, 최종복, 백학현, 한장우
장수백, 이형호, 김정연, 김대중, 김영웅, 김재훈 신부

바오로 : 박홍표, 김현수, 신동걸, 함형식, 박병옥, 최재도, 이민호 신부

2024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①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날짜	강사	날짜	강사
7월 19일(금)~21일(주일)	안소근 실비아 수녀님,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9월 20일(금)~22일(주일)	남궁 민 루카 신부님, 원주교구
8월 16일(금)~18일(주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원주교구	10월 18일(금)~20일(주일)	홍성남 마태오 신부님, 서울대교구

교구 알림

성서사시주간

비대면(Zoom) : 6월 25일(화) 20시

대면 : 6월 25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6월 26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6월 27일(목) 황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중1~고2 예비신학생 모임

때 : 6월 23일(주일) 10시~15시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교리신학원 1학기 종강미사

때 : 6월 27일(목) 18시30분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미사·피정·연수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 6월 23일(주일) 12시 /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민족화해위원회 평화위원 미사

때 : 6월 25일(화) 10시30분

곳 : 명륜동성당

문의 : 명륜동성당 033-762-2512

여성연합회 하계연수

때 : 6월 25일(화)

곳 : 마산 경남식품 견학 및 우곡 성지순례

대상 : 본당 성모회장

준비물 : 개인 컵이나 텀블러(식수는 개인 준비)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문의 : 회장 010-7202-2474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본당 사무장 및 사무 봉사자 연수

때 : 6월 26일(수)~27일(목)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내용 : - 특강 : 교구장 주교님

- 직무교육 : 본당 회계 관리

양업시스템 운용 / 각종 문서 작성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문의 : 사무처 033-765-4221

사회복지 서울후원회 감사미사

때 : 6월 27일(목) 14시 / 곳 : 명동성당 소성당

문의 : 사회사목국 033-731-4557

원주시청 가톨릭공무원 성우회 월례미사

때 : 6월 27일(목) 19시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033-765-4222

신임 교리교사 연수

때 : 6월 29일(토) 13시30분~30일(주일) 14시30분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신임 교리교사 / 신임 연수 미이수 교리교사

준비물 : 사전 문제지(청소년국 홈페이지 게재),

기도문 외우기, 필기도구, 미사준비, 개인컵 등

참가비 : 80,000원 (1박 2일, 1인 1실)

농협 317-0026-5476-11 천주교원주교구

신청 : 6월 23일(일)까지 F. 033-765-4223

E-mail : wjch-02@hanmail.net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예비신학생 월모임

때 : 6월 30일(주일) 11시~15시 /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연세민내과 의원 엄동호(가브리엘), 민마심(엘리사벳) 국가암검진지정기관(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24시간 심전도검사 면역NK세포검사 간섬유화검사(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86) 8시부터 검진 실시	친환경 원목가구 다심마루 최인숙(마리아) 좌탁, 서랍장, 소파, 문갑, 식탁, 침대 황토석오열침대 온열소파 T.033-761-4994 관설KT정문 맞은편	착한시공하우징 백정현(임마누엘) 김진숙(클라우디아) 신축 / 각종 리모델링 전기조명 / 생활용품 일체 T.010-7384-0010 카드결제 가능	밝음신협 故지학순주교님 도움으로 시작됨 예탁금, 적금대출상환, 카드단말기공제 (보험)온누리상품권 본점: 033-745-4571 단란: 764-4575 무실: 033-748-6900 혁신: 735-4575	변호사 최윤환 법률사무소 최윤환(암브로시오), 신주연(글라라) 민사 · 형사 · 가사 · 파산 및 회생 T.033-747-8872 무실동 신법원청사 옆
명성인쇄 · 광고 최경택(요아킴), 이안나(안나) 칼라인쇄 · 책자 · 봉투 · 기념품 광고 · 판촉물 · 팸플렛 · 카렌다 T.033-747-0373 교구청 뒤 중앙로24	세무사 이해경 사무소 이해경(도마), 박영선(리디아) 가장대행·세금신고·이의신청 교구신자 무료 세무상담 T.033-743-0126 원주세무서 뒤	의료법인삼산의료재단 삼산병원 박상기(스테파노) 병원(관절/척추, 수술/비수술 무료 출기세포/인공관절, 내과/건강검진 MRI/CT/초음파) T.033-749-9900 원주시 혁신로 5	연세치과 윤석현(요셉) 임플란트, 잇몸치료, 충치치료 예약상담 : 033-733-7505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2층 마트주차장 무료이용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나서도록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지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부모, 자모 교육

때 : 6월 30일(주일) 15시~17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강당
주제 : “메타인지 학습법”
강사: 리사 손(컬럼비아대학교 버나드대학 심리학과 부교수)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본당 자모회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참가비 : 1인 10,000원(선착순 60명)
농협 317-0026-5476-11 천주교원주교구
본당 이름으로 입금 : 예) 부모원동, 자모학성동
신청 : 6월 23일(주일)까지 F. 033-765-4223
E-mail : wjch-02@hanmail.net
선착순 접수로 신청서와 입금 후 확인 전화 바람.
신청 마감 후 환불되지 않음. 당일 접수 받지 않음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교구 성령쇄신 금요기도회

때 : 7월 5일(금) 20시~24시
곳 : 구곡성당
문의 : 010-8919-9731

파티마 세계사도직 첫 토요일 신심미사

때 : 7월 6일(토) 9시부터
곳 : 단구동성당(미사 김현수 바오로 신부)
문의 : 회장 010-4342-3535

청년연합미사

때 : 7월 7일(주일) 19시
곳 : 구곡성당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엠마우스 성음악 합창단’ 창단 10주년 정기 연주회

1차 : 7월 7일(주일) 16시 / 용소막 성당
2차 : 7월 14일(주일) 16시 / 봉산동 성당
주관 : 원주교구 성음악 위원회
* 많은 관람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하계 캠프

주제 :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스바 3,14)
때 : 7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곳 : 춘천교구 옥계성당
대상 : 중·고등부 예비신학생 및
사제성소에 관심있는 일반 청년
준비물 : 미사 준비, 묵주, 수영복, 세면도구 등
*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가져오지 마세요.

참가비 : 1인당 80,000원

농협 317-0026-5478-81 천주교원주교구
입금자명 : “본당명+예신”기입요망 / 예)원동예신
마감 : 7월 17일(수)까지 F. 033-765-4223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복사학교

주제 :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때 : 7월 30일(화)~8월 1일(목), 2박 3일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남·여 복사 단원,
복사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6학년(선착순 40명)
내용 : 복사교육 및 신앙교육
준비물 : 1인당 복사복 1벌(여-머리망), 세면도구,
필기도구, 여벌옷(충분히), 모자, 편한 신발 등
참가비 : 1인당 80,000원(2박 6식)
농협 317-0026-5478-81 천주교원주교구
입금자명 “본당명+복사학교” / 예)원동복사학교
신청 : 7월 17일(수)까지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wjc4220@hanmail.net 로 접수
문의 : 대학사목·성소 033-763-4220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바람,나(힐링피정): 7.5(금)~7(일)
효소단식: 7.11(목)~14(일), 8.9(금)~12(월)
성경완독: 7.26(금)~8.3(토), 8.23(금)~31(토)
문의 :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010-3340-0201

제21회 가톨릭 좋은학교 연수

때 : 7월 20일(토)~21일(주일)(1박2일)
대상 : Quality School에 관심있는 모든 분
접수 : 학교 홈페이지 7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회비 : 인당 8만원(043-260-507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채용·모집·기타

“가톨릭 미술가회 본당순회 전시회” 개최
때,곳 : 6월 28일(금)~29일(주일), 단구동 성당
7월 6일(토)~15일(월), 봉산동 성당
문의 : 단구동 성당 010-9824-7302
봉산동 성당 010-5369-4838

하늘바라기집 보육사 채용공고

하늘바라기집은 태백에 위치한
아동·청소년 여자 그룹홈입니다.
자격 : 사회복지사 / 문의 : 033-581-2126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02-64-4741~3
www.holyfcac.or.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3박4일
문의 : 010-3645-9028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때 : 6월 30일(주일) 14시 / 곳 : 춘천 윤교동 성당
문의 : 루카 수녀 010-9353-1773

교구청 직원 채용 공고

모집부문 : 관리국 1명, 가정사목국 1명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근무, 4대 보험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교적 사본과 세례증명서 등
※ 회계 경력 업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경력
필히 기재 요망

마감 : 7월 10일(수) 16시 접수 서류까지
방법 : 일반/전자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우편. 원주시 원일로 28 / 교구청 사무처
메일. wjsamu@daum.net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jccatholic.or.kr~교구소식) 참조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채용공고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품으로 떠나신 저희
어머니 故 권순규(요셉피나)를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깊은 애도와 정성어린 기도를 봉
헌해 주신 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과
김지석 야고보 주교님 그리고 모든 성직자,
수도자, 신자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 홍정호 야고보 신부 외 가족 일동 -

인까사 · 옥마루흙침대 금성침대 · 양성국 갤러리 송영범(이시도로), 민병옥(수산나) T.033-747-5757 만종가구단지 내	남부·밝은안과 박찬(루카), 권혁연(프란치스코) 안종합검진, 노안, 사시 및 약시 안건조증, 눈물흘림, 눈꺼풀꺼짐 T.033-766-9100 남부시장 옆-세경아파트주차	출장부페, 이동밥차, 도시락, 답례품 IN & Party (인파티) 인치열(아우구스티노), 이요진(스테파니아) T.010-8790-1309	크리스마스 여행사 성지순례 9월10일 코카서스3국(조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9월24일 스페인 북부 순례 10일 10월13일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 10월27일 이탈리아 성지순례 12일 권영욱(마티아) 010-5485-0114
안경매니저 오피상(방지거), 서난희(아네스) 누진 다초점·하드렌즈 전문점 T.033-742-9901 행구동 SG 마트 T.033-742-9979 무실동 부영 APT 후문	여민한의원 성태경(스테파노), 조성지(마리아나) 교통사고 / 추나요법 / 봉독약침 T.033-766-1075 봉산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1층	정관장(홍삼) 단구점 송봉순(안젤라) T.033-762-2305 단구동 롯데시네마 · 우리은행 옆	경성재가복지센터 남명숙(진이야가다)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T.033-765-0255 · 763-0251 www.경성.kr, 관설 근린공원 인근